安東權氏宗報

陵洞春秋

http://www.andongkwon.or.kr

ISSN 1739-9203 07

제138호

2011년 3월 1일 화요일 인쇄 · 기수월 발행
음력 辛卯年 權氏紀元 1082년 1월 27일 乙卯

발행인겸편집인 權五焄 · 인쇄인 洪政旭

발행소:주식회사 안동권씨종보사 · 경북안동시북문동24-1· 760-120
전화(054)857-7714 전송(054)857-7715
서울분사 : 서울종로구필운동285-5 파크뷰타워807호 ·110-044
전화(02)723-4480· 732-9139 전송(02)738-8935
등록: 안동라-000호[99.4.7.] e-mail : webmaster@andongkwon. or. kr

주간 權在琮 / 편집고문權琪奉 · 權相穆 · 權宅鎭 · 權赫來
편집위원權海兆 · 權貞澤 · 權惠道(미주) · 權甲鉉 · 權五達 · 權奇奭客員)

종원회비1년2만원 / 계좌: 우리은행 1005-601-070000(주)안동권씨종보사

宗 說 문중공동체의 부활을 꿈꾸며

지금 나이 80을 전후하는 우리 세대는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파란과 굴곡을 겪으며 다단하기 그지없는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이다. 일제 식민사회에서의 해방과 분단, 6 · 25전란의 참화, 4 · 19의거와 5 · 16군사혁명, 경제개발과 새마을운동에 이은 산업화 · 도시화, 컴퓨터의 등장으로 말미암은 정보화와 인터넷혁명 등 변화에 정신이 현란할 지경이다. 오늘날 우리가 하루를 살며 접하여 소화하는 정보량이 옛 조선시대의 3백년 분에 해당한다는 설도 있다.

50년 전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다. 60년대에 급발진한 산업화는 세계적 추세의 현대화 물결에 점차로 순응하며 연구에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 우리 사회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교역규모 7위, IT산업과 정보화는 최선두를 달리는 ‘ 한국의 기적 ’을 이뤄 4,50년 전에 독일이 이룬 ‘ 라인강의 기적 ’을 ‘ 그림의 떡 처럼 부러워하던 일이 언제런가 싶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사회가 이렇듯 눈부시게 발전하는 동안 우리의 전통사회는 무너져 사라지고 그 전통사회의 핵이라 할 문중공동체는 퇴영退창을 거듭하였다. 핵가족화와 다인종 사회화가 문중공동체와 세거지 문화 등 전통적 가치기반을 파괴하는 첨병으로 인식하지만 기실은 그런 피상적 현상에 요인이 있는 것만도 아니다. 정보화된 소통체계와 첨단화된 통신 수단을 활용해 대가족제도와 세거지 등이 사라져 없는 현재나 향후로도 보다 효율적인 접근 방법으로 종중이나 문중공동체를 재구성하고 운영함에 아무런 장애나 불편이 있기는커녕 전자에 비해 훨씬 빠르고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심人心, 즉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강상綱常이어야 한다면 강상을 지키기 위해 명명덕明明德의 밝음과 신민新民의 새로움이 있어야 하고 지어지선至於至善의 지성도 있어 정의가 이의利義를 이겨내는 참된 사회가 구현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작된 오도사문吾道斯文의 세상일 것이다. 여기에서, 가족과 문중공동체의 해체 위기에 우리 권씨가 여타성족에 앞장서 이를 복원하고 중흥시킬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는 아무래도 유도儒道의 현실화와 새로운 형태로의 원용援用 외에 대안이 없는 것 같다. 유교적 윤리관만이 대가족제도와 문중공동체를 유지시킬 수 있다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목하 조부모를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는 한국인이 반수에 이르는 현실은, 이같은 패륜적 가치관을 부추긴 이념이 유교적 세계관이 아닌 다른 윤리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문중만이 이러한 가치관을 독점하자는 것도, 가족 및 친족 공동체와 세거 개념의 윤리 체계를 전유하자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기왕에 선대에서 타성족에 앞서 수범垂範한 바 ‘ 사시四始 ’를 비롯하였 듯이 타에 앞서 솔선해보자는 것이다. 지금 해가 갈수록 우리 권씨의 각급 종친회와 종중 동아리가 퇴화 내지 소멸되어가는 양상이 이곳저곳에서 만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해보는 소리이다. ——權相穆 편집고문

▲전북 김제시 금구면 청운리 역양상동에 있는 화원군 충헌공(권중달)의 묘소 전망<관련기사 2면>

▲석장 권중은옹이 5 · 16전야 참모총장 전속부관으로서의 긴박했던 상황을 설파하고 있다<관련기사 8면>

국문판 전산、인터넷 安東權氏大同世譜의 2010년판을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십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종보사 홈페이지 www.andongkwon.or.kr접속하여 족보(대동보)로 들어오시면 회원독자는 능동춘추 독자 고유번호로는 무료, 일반열람자는 유료로 국문판전산인터넷 안동권씨대동세보의 화면이 열립니다.

● 전산대동보 열람 방법

① 인터넷internet 익스플로러explorer 주소란에 www.andongkwon.or.kr입력하면 안동권씨종보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이 나오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대동세보의 편찬운영과 수단접수에 관해 소개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 한글판 대동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를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② 이때 능동춘추의 독자회원은 J123··로 나가는 독자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무료로 족보화면이 열리고, 비독자회원은 유료결제 절차를 거치면 화면이 열립니다.
③ 다시 ‘ 대동보 열람하기 ’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 한글판대동보 쉽게 보는 방법 ’을 클릭하시면 PDF파일을 읽기 위한 어도비애크로뱃리더 설치법과 대동보 내용을 열람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애크로뱃 리더는 족보 열람에 앞서 반드시 컴퓨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④ 쉽게 원하는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 목차 구실을 하는 ‘ 책갈피 ’ 이용법도 나와 있습니다. ‘ 대동보보기 ’ 화면에서 ‘ 한글판 대동보 정본 ’을 클릭하면 PDF파일로 대동보의 내용을 여실히 볼 수 있으며 ‘ 책갈피 ’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체를 확인하며 열람하고, 견상見上(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과 견하見下(아래로 내려가 보기)를 이용해 앞쪽으로 조상은 시조할아버님까지, 뒤쪽으로 후손은 본인에서 본인의 아들、손자까지 오르내리며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⑤ 다만 화면상으로만 열람하시며 이를 프린터로 인쇄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글판안동권씨전산대동세보에는 고유의 저작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안동권씨종보사

본사 : 경북 안동시 북문동 24-1 태사묘 서재、760-120、전화 054)857-7714
서울분사 :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5-5 파크뷰타워 807호、110-044、전화 02)723-4480732-9139